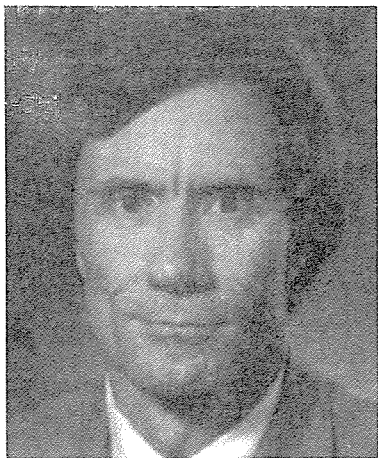


연구비 60만불 보건연구원에 반납

美 패건교수 "유전공학 악영향 고려"



◇존 패건 교수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존 패건교수는 추수감사절을 바로 앞두고 61만4

천달러(약 5억원)의 연구비를 미국립보건연구원에 반납함으로써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미국 아이오와주 페아필드의 마하리시국제대학(MIU) 분자생물학 교수인 패건은 유전공학이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빠른 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항의로 발암물질과 독소대사에 관련된 시토크롬 p450의 청사진인 2개 유전자를 연구하기 위해 그에게 제공된 연구비를 반환했다.

1977년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패건은 미국립보건연구원을 거쳐 1991년 MIU에 부임했다.

94년 기발한 아이디어상 수상

민츠박사 "서로 다른 유전자 융합"



◇비트리스 민츠박사

미국 필라델피아소재 폭스 체이스 암센터 산하 암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비트리스 민츠는 미국철학회 리셉션에서 1994년 11월 18일 '존 스카트' 상을 받았다.

1800년대초에 스코틀랜드인 약사인 존 스카트가 필라델시에 대해 위탁한 이 수상제도는 당초 20달러와 조각된 동메달로 되어 있다.

스카트의 뜻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현저한 방법으로 기여한 유용

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수상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직물기계와 문의 자물쇠와 같은 것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수상되었다.

20세기로 들어와서 수상한 사람들 중에는 매우 기발한 발명을 한 토마스 에디슨, 조너스 소크(소아마비 백신 발명자), 라이트형제 그리고 캐리 멀리스(유전자복제기술인 PCR을 발명하여 1993년도 노벨화학상을 수상)가 포함되어 있다.

민츠의 최초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발생초기에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쥐의 배태(胚胎)를 하나의 덩어리로 융합하여 본래의 배태의 특징을 모두 갖는 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법을 설명한 그녀의 초기의 논문은 150회나 인용되었는데 오늘날 이 기법은 표준처럼 되어 사람들은 소스를 인용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민츠는 또 암이 세포분화와 발육 중 결합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유도하게 된 1970년대 그녀의 실험연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46년 아이오와대학에서 발생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민츠는 1960년 폭스 체이스암센터로 오기 전까지 시카고대학 교수로 있었다. 그녀는 1973년 이래 미국과학아카데미 회원이며 1982년이래 미 철학회 회원이다. (ST)